12% 첫 주택 구입자의 %는 계약금을 위해 암호화폐를 판매했습니다.

레드핀(Redfin) 보고서에 따르면 4분기에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 9명 중 1명(11.6%)은 암호화폐 판매가 계약금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. 이는 2020년 3분기 8.8%, 2019년 3분기 4.6%보다 증가한 수치다.

레드핀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대릴 페어웨더(Daryl Fairweather)는 "시간이 더 많고 돈을 쓸 수 있는 흥미로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암호화폐를 거래하기 시작했다"고 말했다. "그 투자 중 일부는 연기가 났지만 다른 일부는 '달에' 갔다.

Redfin은 향후 12개월 동안 주택을 매매할 계획인 거주자 1,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의뢰했습니다. 이 보고서는 "계약금에 필요한 돈을 어떻게 모았습니까?"라는 질문에 응답한 1,500명의 응답자 중 215명에 초점을 맞춥니다. 가장 흔한 응답은 "급여에서 직접 저축했다"(52%)였고 덜 일반적인 응답은 "가족으로부터 현금 선물"(12%) 및 "퇴직 기금에서 일찍 인출했다"(10%)였다.

집값이 치솟으면서 계약금이 늘어남에 따라 일부 구매자는 비용을 충당하고 다른 입찰자와 경쟁할 수 있는 비전통적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.

페어웨더는 “암호화폐는 세대가 없는 사람들이 중산층으로 가는 복권에 당첨되는 한 가지 방법”이라고 말했다.

밀레니얼과 Z세대가 주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도 주택 구입자들 사이에서 결제 수단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. 다른 세대보다 더 많은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는 이제 신규 모기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.

PROVIDENT TITLE COMPANY

SOURCE: THE TITLE REPORT https://bit.ly/3gjZiv9